

두바이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

두바이사무소

2014. 1. 5

- 두바이 정부는 최근 사업주가 모든 두바이 근로자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도록 보건법 개정
 - 사업장 규모(직원 수)에 따라 2014~16년 동안 단계적 시행
 - 1,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14년 10월까지, 1,000명 미만은 2016년까지 의무가입 예정
 -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, 직원 가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
 - 두바이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할 것을 권고하지만,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에서 제외
 - 법 개정으로 약 300만명의 두바이 거주자(외국인 및 자국민)들이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예상
 - 의료보험 가입을 비자 취득(갱신)과 연계하여 강제 예정
 - 현재는 생산직 노동자의 20~30%만 의료보험 가입 중
-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질병은 진찰, 외과수술, 검사, 출산, 응급 등에 한정되며, 성형, 치과, 안과 등은 제외
 - 연간 의료보험료는 평균 500~700디람(한화 약 15만~21만 원)으로 예상되며, 정부가 보험회사별 상품 승인 예정
- 두바이는 UAE 7개 지방정부(Emirates) 중 아부다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